

## 전파방지와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입장에 대하여 (미국연구소 문진혁실장의 발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적립장을 견지하였으며 핵무기사용과 전파방지와 관련한 일관한 원칙을 고수하여왔다.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적립장과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무기와 기술, 무기급핵물질의 전파방지를 위한 대책을 법적으로 명기하였다.

2016년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결정서에서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적립장을 밝히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2018년 4월에 진행한 조선로동당 제 7기 제 3차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평화애호적립장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우리가 핵시험을 중지하며 이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기로 한것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부응으로 된다.

그러나 힘에 의한 《정의》, 힘에 의한 《진리》가 란무하는 현 국제무대에서 어느것이 진실인지, 어느것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진정한 군축 및 전파방지문제의 본질이 외곡되고있으며 특별한 나라들의

세계제패야망을 합리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불순한 간섭의 도구로 전략되어가는 가슴아픈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최근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의 일부 관리들과 EU 나라들이 우리의 조약가입문제를 운운하면서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고 핵시험중지를 선언한 의의를 애써 왜소화하려 하고있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에 대해 말한다면 1996 년이 이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나라들이 비준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조약은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한 미국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있으며 특히 미국은 소형핵무기의 개발과 실전사용을 국책으로 정하고 핵무기사용제한문턱을 낮추는 한편 핵무력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폐조약(INF)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데 이어 최근에는 령공개방조약에서도 탈퇴하려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제패실현에 거치장스럽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군축과 군비통제제도라고 할지라도 안중에 두지 않으며 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거리미싸일배비를 비롯하여 적수들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려는 인류의 숙망에 칼질하면서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독선적행위로 하여 세계는 재난적인 군비경쟁에 휘말려들고있으며 언제 어떻게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한것들을 외면하고 우리의 자위적핵보유를 결고드는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부정하는것으로서 국가의 존엄과 핵군축 및 전과방지를 위해 기울인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

더우기 미국이 현재까지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은 고사하고 우리의 비핵화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조차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었다는 아무런 담보와 전망도 없는 조건에서 우리만을 문제시하는것은 총을 들고 서있는 적수앞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손을 들라는 강도적요구이며 바보가 아니고는 이에 동의할 나라와 민족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조선반도문제의 해결방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완전철회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핵보유의 역사적경위를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저 한다.

미국은 인류력사상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한 전범국가로서 핵무기에 의한 세계제패야망을 한번도 포기한적이 없다.

조선전쟁시기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략적대상물들을 핵무기로 타격한다는 위협천만한 핵전쟁각본을 짜놓고 조선반도를 죽음의 방사능복도지대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에서 그 무슨 흠어진 조선인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한 결의안이라는것들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단의 비극, 미국이 《원심》을 쓰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조선인민에게 그토록 가슴아픈 상처를 남긴 바로 미국의 원자탄공갈에 의해 초래되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

정전후에도 미국은 정전협정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부터 남조선에 각종 군사장비들을 증강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하였으며 1957년에는 남조선에 첫 전술핵무기를 반입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동북아시아최대의 핵저장고로 화하고 조선인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보다 극악한 핵전쟁위협을 받아왔다.

미국은 1955년부터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1976년에는 방대한 침략무력이 참가하는 북침핵전쟁연습인 《림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으로 격상시키고 정기적으로 감행하였다.

미국이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15》를 비롯한 각종 핵전쟁각본들을 짜놓았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며 그 적용과 실천을 위해 모든 전략자산들이 투하되는 형형색색의 합동군사연습을 하루가 멀다하게 벌려놓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있는것이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어 핵타격훈련을 정례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다.

령토와 인구수에 있어서 미국과 대비할수 없는 나라인 조선을 대상으로 전개한 1,000 여개의 핵무기들과 《년례적》이라는 병거지를 썩워놓고 방대한 전략자산을 투입하여 상대방의 코앞에서 해마다 벌려놓는 핵전쟁연습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 대조선적대시와 침략전쟁책동의 산 증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였으며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였다.

1975 년 유엔총회 제 35 차 회의에서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꾸준한 투쟁의 결과이며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지지로 된다.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지대창설도 제안해보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해보았으나 모든것이 허사였으며 미국은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모두 무시하거나 한사코 거부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를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에 빠뜨려놓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고있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리념적적대시로부터 출발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변하지 않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특히는 동북아지역내 패권추구야망이다.

이전 행정부의 대통령특별보좌관이였던 미국의 이름있는 지정학전문가인 브레진스키는 세계제패를 위한 《3 대가장자리》 전략을 론하면서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력대 미 행정부들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저들의 동북아전략과 세계제패실현에 관건적의의를 차지하는 중요한 《가장자리》였고 이러한 《가장자리》우에 우뚝 솟아있는 반제반미보루인 사회주의조선은 그야말로 눈에 든 《가시》였으며 이 《가시》를 제거하고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는것은 미국이 꿈에도 바라는바였던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대조선군사적침공시도를 언제한번 포기한적 없으며 전대미문의 핵공갈과 가혹한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짓을 다하였다.

결국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하는 길만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세기이상 허리띠를 조이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위적핵억제력까지 갖추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가의 존재자체를 말살하려드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책동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최상의 방도였다.

오늘날의 조선반도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의해 산생된 문제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근원적방도, 비핵화의 진전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가지고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자위적핵무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그 무슨 대가를 바라고 협상탁에 올려놓는 흥정물이 아니며 우리가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총구를 내댄 적들앞에서 두손 들고 먼저 항복하는것과 같은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도 론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바이다.

또한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가증되는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압살책동속에서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마련한 핵무력이 그 어떤 다른 야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존재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것을 강조하고싶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앞에 지닌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이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다.



*Неофициальный перевод<sup>1</sup>*

## **О ПОЗИЦИИ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ПО ВОПРОСАМ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sup>2</sup>**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с самого своего основания придерживалась независимой и миролюбив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ыступала против агрессии и войны, отрицала идеи господства и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и отстаивал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ую позицию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апреле 2013 г.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юридически была закреплена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о том, что наша Республика прибегнет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ли угроз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еядерным государствам только, если они, вступив в сговор с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обладател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 агрессии ил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 действиям, направленным против КНДР. Также были закреплены меры по безопасному хранению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обращению с ним,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ехнологий и яде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богащённых до оружейного уровня.

В решениях VII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рошедшего в мае 2016 г, была обозначе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позиция ТПК,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наша Республика, будучи ответственной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стан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первой, только если агрессивные враждебные силы посягнут на наш суверенитет посредство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ак это было прояснено ранее. Также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КНДР будет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в сфере ядерног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прикладывать усилия в де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мир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оварищ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на прошедшем в апреле 2018 года третьем пленуме ЦК ТПК VII созыва разъяснил миролюбивую позицию КНДР,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мы достигли необходимого уровня мощи, надёжно гарантировал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народа и на этой основе намерены активно вносить свой вклад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ира без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желаниями и стремлениями, разделяемыми всем человечеством.

Остановка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нашей страной и решение о ликвидации Сев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для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принятое с целью дать прозрачные гарантии выполнения этого шага,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важные события в деле сокращения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по всему миру и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нами в отве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тремления и усилия по полному прекращению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

<sup>1</sup> Неофициальный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К.А. Усов. © Центр энерге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sup>2</sup> Текст выступления Мун Зин Хека,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Института америка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Д КНДР, в рамках Москов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 2019. 9 ноября 2019 г., Москва, Россия.



Однако на соврем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где тон задают навязанные сил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истина», настоящая сущность проблем сокращения вооружений 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скажается до такой степени, что сложно различить, где правда, а где ложь. Перед нами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печальная картина, когда эта сфера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целях для оправдания стремлений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 к мировому господству и в качестве инструмента для беспорядоч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других стран.

Эту тенденцию можно увидеть, взглянув лишь на проблему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запрещени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часть членов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Организации ДВЗЯИ вместе со странами ЕС, комментируя вопрос вступления нашей страны в договор, активно стремятся преуменьшить значение ликвидации Сев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для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и заявления об остановке подобных испытаний.

Вообщ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ДВЗЯИ, то с момента его открытия к подписанию в 1996 г. прошло уже много времени, однако по причине того, что он не был ратифицирован всеми странами, одобрение ко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вступления договора в силу, он до сих пор не действует.

Договор всё ещё не ратифицировали США, обладающие самыми большими в мире запасам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и этом именно эта страна закрепила в каче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азработку и боевое применение малых ядерных зарядов, тем самы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нижая порог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 другой – придавая ускорение модернизации ядерных сил.

Недавно США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вышли из Договора о ракетах средней и меньшей дальности, а теперь звучат голоса и о намерении выйти из Договора по открытому небу.

Эти действия дают понять, что США не считаются ни с чем, если видят в этом препятствие на пути к мировому господству, даже если это – система сокращения вооружений и контроля над ними, имеющая мировое значение. Так, они не скрывают сво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 способов для оказания силов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противник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азмещения ракет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в азиатском регионе.

По причине самонадеянных действий США, которые готовы без колебаний пойти на всё ради соб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ставя при этом крест на заветном желан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о том, чтобы войны прекратились и установился вечный мир, все страны оказались втянуты в разрушительную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и без конца страдают от беспокойства и страха, гадая, когда и как начнётся ядерная война.

Кроме этого, придирки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мы обладаем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в целях самообороны, оскорбляют достоинство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наши добросовестные усилия по продвижению сокращения 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ак как полностью отрицают права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США отказываются принимать реальные меры по отмене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не думают даже об ответных мерах на наши действия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 условиях отсутствия каких-либо гарантий и перспектив ликвидации ядерной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США видеть проблему только в нас равносильно разбойничьему требованию разоружиться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и сдаться противнику, стоящим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и нет в мире такой страны и народа, которые, не будучи дураками, согласятся на это.

Путь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лежит через полный отказ от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СШ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В связи с этим я хотел бы с этой трибуны ещё раз напомнить об истории приобретения КНДР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ША,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 военный преступник,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испытывавше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и впервые его применившее, никогда не отказывались от стремления достичь мирового господства посредство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США разработали крайне опасный план ядерной войны,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л удары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по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объектам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ни замыслили превратит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 радиоактивный пояс смерти.

Недавно Пала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нгресса США приняла то, что они называют резолюциями в отношении неких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 встреч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днако нельзя не признать тот исторический факт, что раскол нации – трагедия, тянущаяся с прошлого века, равно как и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и встреч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 которых так «беспокоятся» США, были созданы именно по причине запугивания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со стороны Америки, что оставило глубокие душевные раны у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Даж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е успели ещё высохнуть чернила на Соглашении о перемирии, США увеличили количество разли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ачал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нарушать Соглашение и в 1957 г. ввез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первое тактиче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С размеще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ревратился в самую большую «горячую точку» в мире, в место, где хранились самые значительные запасы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о вс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д корейским народом нависла не ведомая по степени своей серьёзности никакой другой стране ядерная угроза

С 1955 г. США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ли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против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а в 1976 г. были подняты д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уровня и переведены на регулярную основу учен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Тим спирит», предполагавшие отработку ведения ядерной войны с КНДР и в которых участвовали масштабные контингенты агрессивны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ассекреч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в начале века США разработали различные планы ядерной войны с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о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актические планы «5027» и «5015». Даже дети знают о том, что ради реализации этих замыслов США чуть ли не каждый день проводили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всех видов и форм, используя при это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их распоряж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активы.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напомнить о том, что США ещё задолго до появления у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разместил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ядерны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активы, прежде вс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и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ли учения по отработке ядерного удара.

Развертывание более 1000 единиц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отив КНДР, страны не сопоставимой с США по размерам территории и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прямо у нас под носом учений по отработке ведения ядерной войны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активов под прикрытием «ежег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сё это – жив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не поддающихся оправданию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и агрессивных военных манипуляций.

КНДР, приложив всеобъемлющие усилия с целью положить конец подлой ядерной угрозе со стороны США и построить систему постоянного мира, предложила США заключить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Принятие на 35-ой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в 1975 г. резолюци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заключить мир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КНДР и США, а также вывести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размещённые там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 это результат добросовестных усилий и упорной борьбы КНДР, а также знак абсолют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ших справедливых предложений со стороны прогрессивной мир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сле этого КНДР предлагала создать зону, свободную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ступала в Договор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днако всё было напрасно: США игнорировали все наши справедливые и рациона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или изо всех сил выступали против них.

Существуют важ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того, что США подвергают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остоянной угрозе ядерной войны и не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Они заключаются в сущностном неприятии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торое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враждеб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ммунизму, а также в неизм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мирового господства США, в частности в желании достичь гегемонии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Бывший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звестный в Америке специалист по геополитике Збигнев Бжезинский выдвинул стратегию «трех зон»,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мирового господства и подчёркивал геополитическую важ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ля нескольких американски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подряд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подобной важной «зоной», имеющей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как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так и мирового господства. И именн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Корея, оплот антиимпериализма и антиамериканизма, возвышающийся в этой «зоне», стала «бельмом на глазу» США, которые спали и видели, как избавиться от этого препятствия и будут владеть всем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Поэтому Америка не оставляет попыток военного вторжения в КНДР и делает всё, чтобы силой подавить нашу Республику, включа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усилия по запугиванию посредство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 также введение жесточай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мы испытали на себе ценную истину,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особ полностью ликвидировать угрозу ядерной войны со стороны США и гарантировать существование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 это создать, хоть и затянув пояса, мощные силы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В целях защиты суверенитета, прав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а также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от агрессивных и гнусных манипуляций США,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отив КНДР и нацеленных на полную ликвидацию самого факта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м ничего не оставалось, кроме как удостовериться, что после более 50 лет изнурительных усилий КНДР укрепит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и обзаведётся силами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с целью самооборон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облем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истекает не из факта владения КНДР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а из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СШ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и исходящей от них ядерной угрозы.

Поэтому путь к полному решению этой проблемы, прогресс в дел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сецело зависят от того, есть ли у США воля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или нет.

Наши ядерные силы самообороны не являются предметом торга, который мы готовы выложить н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с целью получить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или какие-либо другие выгоды, обещанная нами «полна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не является односторонней акцией, подобной тому, чтобы сдать первым, подняв руки перед наставившим на нас оружейное дуло противником.

Хочу ещё раз подтвердить с этой трибуны, что пока США не примет реальные меры по полной и безвозвратной отмене враждебной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не может быть и речи ни о как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роме того,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ядерные силы, доставшиеся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е ценой огромных жертв в условиях подл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воен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анипуляций США, осуществлённых с целью подавить нас, являются средством сдерживания Америки, которая замышляет не что иное как ликвидировать сам фак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защиты наш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 неё.



**Центр энерге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www.ceness-russia.org](http://www.ceness-russia.org)

**Москов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2019**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 Разоружение |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Наша Республика и впредь будет добросовестно ис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перед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в област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продолжать прикладывать усилия по сохранению мир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во всём мире.